



목포시 전경

도시는 성장... 인구는 10년 넘게 제자리

통계로 본 2014 목포시

2014년도 목포시에서는 1일 6명의 아기가 태어난 반면 4명이 사망했다. 또 하루 평균 4쌍이 결혼에 골인했으나 절반인 2쌍은 갈라섰다. 특히 매일 3건의 교통사고와 36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돼 범죄 도시의 오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8만7998대에 달해 '1세대당 1대' 보유시대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최근 발간된 '2014년도 목포통계 연보'에 나타난 통계지표를 통해 '목포의 하루'를 살펴봤다.

◇인구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모든 면에서 도시가 성장했지만 인구는 10년 넘게 24만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전년도 목포시 인구는 24만3171명으로, 목포시 면적 대비 ㎢당 4805명에 달해 인구밀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88년~1990년 25만대를 유지하던 인구가 2000년부터 24만대로 내려앉은 이후 줄곧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동별 인구는 부주동이 2만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상동 1만9339명, 신흥동 1만8761명, 원산동 1만65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실은 부흥동, 상동, 신흥동은 2만명이 무너진 반면 옥암지구 신생동인 부주동은 2만명을 넘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급속 진행됐음을 반증한다.

특히 인구지표의 근간인 하루 평균 출생이 지난 2000년 9.5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지만 2001년 8.3명, 2002년 7.3명, 2003년 7.1명, 2004년 6.6명으로 점점 낮아져 6명대로 내려앉은 이후 10년 가까이 6명대를 맴돌고 있다. 이는 목포시의 출산장려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구이동 역시 전입은 4만729명인데 비해 전출은 4만5728명에 달해 무려 5000여

- 인구-24만 3171명
하루 평균 6명 출생 4명 사망
- 범죄-1년 1만3천건 발생
교통법규 적발 3만건 '심각'
- 높아진 생활 수준
여권발급 4313건 매년 증가

명이 목포를 떠나 타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도시 오명 여전=전남 도내 교통사고 10대 다발지역 중 가장 많은 곳을 보유하고 있는 목포시에서 지난해 총 12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4명이 사망하고 1975명이 부상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3만126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속도위반이 2만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이 43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음주운전이 1846건, 신호위반은 2861건에 달했고 심지어 무면허도 312건이나 적발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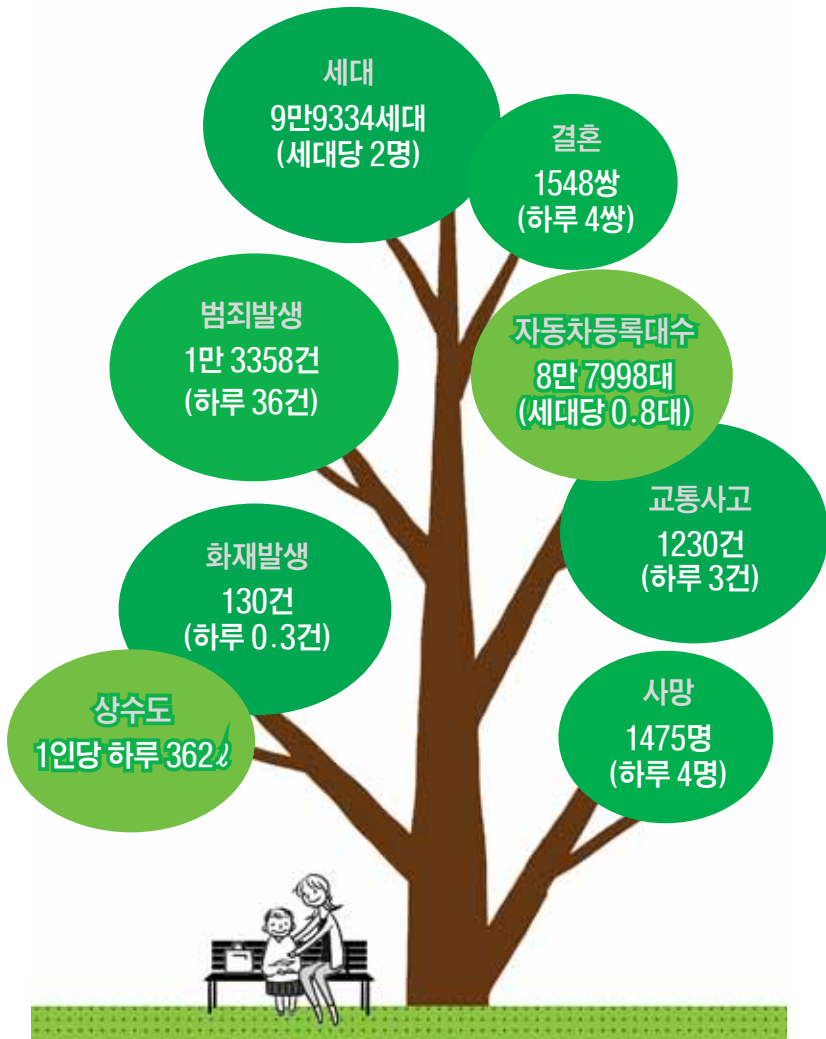
특히 범죄는 1년새 1만3358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36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범죄도시의 오명을 또 다시 떠안게 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력범 199건, 절도범 1836건, 폭력범 2590건, 지능범 2363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범죄도 31건이나 됐다.

이에 반해 화재는 130건이 발생해 전년도 157건 대비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은 나이지=교육과 의료, 도로, 상수도, 녹지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5개소 등 모두 276개소에 의사 477명을 보유, 의사 1명당 시

2014년 목포시 통계지표



민 비율은 544명이었다. 교육은 129개 학교에 3305명의 교직원과 근무해 교사 1명이 학생 18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총 세대수는 9만9334세대인데 비해 주택 수는 9만3877동으로 주택 보급률이 94.5%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5만5412동, 단독주택은 2만9874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허가는 주거용 184건, 상업용 275건 등 총 566건으로 전년도 647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자동차도 8만7998대가 등록돼 세대당 0.8대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만2150대가 자가용이었다. 주차장은 4788개소에 주차면 6만4918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원은 총 119개소(면적 6801㎡)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9.7%에 달했다. 여권발급은 4313건으로, 해마다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임영춘·고규석기자 lyc@

발레·연극·미술·오페라 '예술도시 목포'

정부 예술교육 3년 연속 선정

목포시가 (사)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에서 공모한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오는 11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예술로 함께 꾸는 꿈'이라는 부제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목포시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관한다.

모집 분야는 발레반, 오페라반, 연극반, 미술체험반 등 4개 반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초등학생 50~100명씩(선착순) 총 300명을 모집한다. 학부모도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와 교육비, 교재비 등 모든 경비는 무료다.

발레체험반은 '나도 발레리나'라는 제목으로 6월까지 발레명작감상, 발레

기초동작, 기복끼리 발레로 대화하기 등 감상과 체험위주로 총 12주간 교육한다. 연극반은 '굴개굴개 청개구리'라는 제목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즉흥극 만들기, 연극 표현하기, 과장 드라마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미술반은 '피카소의 놀래?'라는 제목으로 9월 5일부터 10월 까지 명화 감상법, 미술관 견학, 명화따라 그리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오페라반은 '오페라아지트'라는 부제로 오페라 가수 총로, 오페라 동영상 감상, 바르코 및 낭만주의 오페라 이해, 명작 공연 관람 등을 지도한다.

참여 희망자는 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061-270-8710), 이메일(dbstjr00@korea.k)로도 가능하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호남고속철 연계 관광상품 개발 총력

호남고속철(KTX) 개통에 따라 목포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 코레일 산하 여행사, 중화동남아 여행협회 등 국내 여행사 대표와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170여 명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가졌다.

'KTX 호남선의 시작, 두 시간의 설레임-대한민국 항구 1번지 목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목포 출신 국악인 박애리의 '목포의 눈물'로 막을 올린 뒤 역사문화, 예술,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보유한 항구도시의 면모가 소개됐다.

또 4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꽃피는 유달산 축제'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목포 항구축제' 등 지역 축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용률 목포시장은 "KTX 개통을 계기로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한국여행업 협회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중화동남아 여행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대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 선정

목포대학교가 호남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해외 선진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업(Co-op=Cooperative education)의 한국형 모델로서, 대학의 학업합기와 체계적인 산업체의 전일제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이다. IPP 사업은 3~4학년 학생들이 전공교육과 연계된 산업현

장에서 장기현(4~10개월) 실무경험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훈련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이공, 상경계열 중심으로 2100여명의 학생이 800여개의 기업에서 연구개발, 설계, 영업 관리, 마케팅 등 전공 관련 직무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될 예정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매년 IPP 일·학습병행제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의 70%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양질의 중견기업으로 취업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200억 원 규모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최소 월납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료 5만원 이상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 (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상임의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